

■ 인터뷰 - 권대봉 인천재능대학교 총장(복야공파 36세)

“변화 당하지 않고 변화하는 인재 키워낼 것”

“변화하지 않으면 변화 당한다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제 대학도 학생 개개인이 가진 재능을 발굴해 역량을 높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총장으로 취임해 인천재능대학교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 권대봉 총장은 변화의 원동력을 ‘학생을 위한, 학생의 미래를 생각한 정책’이라고 강조한다.

이 때문에 권 총장은 취임 이후 인천재능대학교직원에게 ‘언제나 학생의 미래를 생각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바이오와 인공지능(AI) 분야의 개발을 넘어 활용하는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있다.

취임 10개월을 맞은 권 총장을 만나 인천재능대의 미래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취임 후 대학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변화가 도드라지고 있는 것 같다.

A 변화를 받아들이는데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변화창조형이 될 것인가, 변화적응형이 될 것인가, 변화저항형이나 변화무관형이 될 것인가 4가지로 나뉜다. 변화하지 않으면 변화당하고, 어떤 유형이 될 것인가는 결국 자신의 선택에 달린 일이다. 변화창조형이 돼야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고, 지금이 바로 변화를 당할지, 할지의 기로에 서있는 때라고 판단했다.

Q 바이오와 AI 분야에서 과감한 행보를 보이는 것도 그 일환인가.

A 대학은 학생들의 미래를 만드는 공간이다. 바이오와 AI 분야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모든 변화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시대인 만큼 장차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일할 때 경쟁 우위를 가지려면 AI와 바이오를 특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세계적 바이오기업이 모인 송도 내 캠퍼스를 바이오 특화 캠퍼스로, 송림캠퍼스를 AI특화 캠퍼스로 만들고 있다.

Q 가장 큰 변화를 꼽자면 어떤 것들이 있나.



권대봉 총장

A 올해부터는 모든 학과에 인공지능 관련 교과목을 도입했다. 단순히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학과가 아닌 인공지능으로 피부타입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화장품과와 뷰티케어과에 도입하는 것처럼 활용 분야에 방점을 뒀다. 2021학년도에는 인공지능융복합과를 신설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활용하는 휴먼웨어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인천이 바이오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도시로 자리잡은 만큼 우리 대학에서도 바이오 산업을 이끌어나갈 인재를 양성할 기반을 갖추고, 지역사회와의 전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화를 위해 지난 6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업무협약도 맺쳤다. 이 같은 교류에 힘입어 최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반 재학생 10명이 채용과 연계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산학인턴으로 최종 합격하기도 했다.

Q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을 강화하면서 인성 교육도 함께 도입한 것이 눈에 띈다.

A 바이오나 AI는 모두 제대로된 직업관과

인성을 갖추지 않고 기술만 발전하면 우리 삶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스스로 제대로된 직업관을 갖추고 글로벌 역량을 갖도록 직업철학교육이나 인성교양교육, 철단과학기술교육을 함께하고 있다.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과 소신, 철학을 갖게 하는 직업윤리 등의 과목과 함께 문화예술을 통한 인성 함양을 위한 1인1악기지도, 1인1스포츠지도도 2021학년도 1학기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Q 기존 도서관의 틀을 깬 자율·창의 AGORA(아고라)를 만들었는데, 어떤 뜻인가.

A 사실 도서관 하면 ‘정숙’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지 않나. 우리는 이것을 과감히 깐 대화식 학습법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었다. 이스라엘의 하브루타식 교육방식과 유사한데, 각자가 분석하고 자신의 생각을 조직화해 상대방에게 설명하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전혀 새로운 관점을 발견해나가는 창의적 방식이다. 이를 위해 교직원 식당으로 쓰던 13층을 학생들을 위한 아고라 도서관으로 조성하고, 교직원은 학생과 함께 식사하도록 했다.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학교 주변 식당 상권의 활성화나 학생들과의 소통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교직원들이 배려한 부분이다.

Q 마지막으로 어떤 대학을 만들어가고 싶으신지.

A 시기는 일만 열심히 하는 인재를 키워내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학생 개개인이 가진 재능을 발굴해 일렬 횡대로 줄을 서 특성을 갖도록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언제나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학생들을 위한 정책들을 펼쳐 ‘인천재능대 출신은 시대에 발맞춘 진정한 인재’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출처: 경기일보 2020년 10월20일 화요일 12면
인천재능대학교 권대봉 총장 인터뷰
글: 김경희 기자
사진: 장용준 기자

물방울로 바위를 뚫은… 장계 권삼수

〈교주 경악전서(校註 景岳全書)〉를 출판한 장계(長溪) 권삼수(權三壽, 좌윤공파, 37세) 족친은 유년시절에 신문배달을 하며 야간 중학교를 다녔다. 그러나 건강 악화로 인해 다니던 야간 중학교마저 중퇴해야만 했다. 하늘은 주경야독하는 것마저 하여하지 않았다. 26살에야 겨우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 36살에 고등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43살에는 한약업사(韓藥業士)에 간신히 합격해 처자식을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선천성 폐조직의 기형을 앓고 있었다. 나이 50에 이르도록 고통을 겪다가 무려 11시간의 대수술 끝에 겨우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다. 그때 “아마도 인간 생명의 여탈을 관광하는 천지신명의 창조주께서 나로 해금 무언인가를 더 시킬 일이 남아 있어서 잠시 동안이나마 조금 더 살려준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것은 시 ‘승무’와 지조론으로 유명한 시인 조지훈의 아버지 조현영이 쓴 〈통속한의학원론〉이라는 책을 읽고 서야 깨달았다. 그때 사람들의 병을 진단하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하는 처방이 실려있는 명나라 장개빈의 불후의 명저 경악전서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러나 한문이라고는 천자문도 배워본 적이 없었다. 공부를 가르쳐 주는 스승도 만나지 못했다. 하지만 부지런히 또 부지런히 성실하게 매일 정진한 결과 60에 가까워서야 보다 심도 깊은 한의학 서적들을 조금씩 섭렵할 수 있었다. 특히 경악전서는 전문 학자들도 어려워하는 한의학 서적이었다. 기존 번역서를 보았더니 여기저기에서 도대체 이치에 맞지 않는 표현들이 눈에 띠었다. 이 경악전서만은 일생을 걸고 꼭 고쳐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다. 그래서 그는 그 난해한 경악전서를 20여 년 동안 불들고 이치가 통할 때까지 옥편을 찾고 또 찾았다. 그에게 옥편은 최고의 승상이었다. 죽을 각오로 뼈를 깾고 피를 말리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떨어져 커다란 바위에 구멍을 뚫듯이(水滴石穿), 다산 정약용이 강진에서 18년 동안 유배생활을 하면서 500여권의 책을 쓰면서 복숭아 뼈에 세 번 구멍 뚫듯이(裸骨三穿) 그렇게 20여 년 동안 한 글자 한 글자씩의 의미를 헤아리다 보니 어느날 그 방 대한 경악전서의 이치를 드디어 다 깨뚜를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2,300쪽의 거칠인 〈교주 경악전서(校註 景岳全書)〉 64권이 탄생했다. 논어의 학이시습(學而時習)이란 말처럼 옥편을 스승 삼아 수시로 배우고 익히며 10여 판본과 200여 인용 원서를 정밀 대조하고 8회에 걸친 교정을 통해 역대 어느 판본보다 정확도를 높이려 심혈을 기울인 결과물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전거(典據)에 의한 교정과 어휘풀이에 대한 1만여 개의 풍부한 주석과 함께 82편의 논문을 상세하게 번역했다. 여불위가 수천명의 학자들을 불러 모아 여씨춘추(呂氏春秋)를 완성하고 저자거리에 이 책에서 한 글자라도 고칠게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상금을 주겠다고 장담했듯이, 장계 권삼수 족친은 그 많은 원문 100만여 자에 한 글자라도 잘못된 글자를 지적한다면 한 글자당 1만원의 현상금을 내걸 정도로 경악전서 320여년 이래 가장 정확한 경악전서라고 자부한다.

장계 권삼수 족친에 의해 새롭게 탄생한 〈교주 경악전서〉는 기존의 판본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일례로 ‘좌음냉수(坐飲冷水)’를 기준 번역에서는 “앉아서 냉수를 마셨기 때문”이라고 번역한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면 냉수를 앉아서 먹으면 괜찮고 서서 먹으면 뭔가 이상이 발생한다는 것처럼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 교주 경악전서에서는 ‘좌(坐)’는 ‘~ 때문에’, ‘~까닭으



로’, ‘~로 인해’로 해석해 냉수를 앉아서 먹는 서서 먹든 신체가 요구하는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먹으면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의미로 파악한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자. 비희개려무자(妃嬪皆麗無子)라는 구절이다. 기존 판본에서는 “왕비와 희빈들이 모두 아름다웠으나 자식이 없었다”고 번역한다. 이에 대해 〈교주 경악전서〉에서는 여자의 아름다움이 자식을 낳는 것과는 무관하므로 “왕비와 희빈, 잡자리를 하는 모든 여자들이 자식이 없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바로 다음의 ‘시(詩)였다.

婦人吹奶 法如何 부인취내 법여하

부인의 젖이 불어 아플 때 처방은 어떻게 하나요?

皂角燒灰 蛤粉和 조각소재 합분화

조각을 태워 재를 만들어 합분 가루와 잘 섞어서

熱酒一杯 調八字 열주일배 조팔자

따뜻한 술 한 잔으로 두 돈의 가루약을 타서 마시면

管教時刻 笑呵呵 관교시각 소가자

틀림없이 (약을 먹자마자) 곧바로 낫게 될 것이라네

이 시는 본초강목에 있는 시인데 장개빈이 원문 그대로 경악전서에 실었다. 이 시 중에서 첫 구절과 두 번째 구절은 다소 평범한 글이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마지막 구절이다. 어느 판본은 “조금 있으면 웃게 된다”고 했고, 또 다른 판본에서는 “피리 한 곡 연주할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없어져 웃는다”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구절의 관건은 관교(管教)라는 허사(虛詞)이다. 허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결코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이다. 관교를 ‘틀림없이’ ‘분명히’라는 허사로 보고 “틀림없이 (약을 먹자마자) 곧바로 낫게 될 것이라”고 해석해야 전체 내용이 서로 통해 이치에 부합한다.

이와같이 장계 권삼수 족친은 경악전서 전체 문장을 아픈 환자의 맥을 짚어 진단하듯이 가리지고 왜곡된 부분들을 일일이 찾아 〈교주 경악전서〉를 재탄생시켰다. 한의학사에 한 회를 그은 역사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학문의 발전은 언제나 변방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실감하는 살아있는 사례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장계 권삼수 족친은 “다만 이것은 제가 혼된 인생을 살지 않으려고 제 자신을 준엄하게 다그치고 쟈찌질한 작은 혁적일 뿐”이라고 겸손해한다. 비록 “이처럼 조라하고 보잘것없어 참고하지만 이것이 숨김없는 제 인생의 전부”라고 토로한다. 그러면서 “천지의 대덕(大德)으로 지금까지 삶을 누리고 살아왔으니 이제 더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도연맹(陶淵明)의 귀거래사(歸去來辭)처럼 오로지 대자연의 섭리에 따라 물같이 바람같이 한 세상 살았으니 한줌의 흙으로 돌아가리다.(聊乘化而歸盡)”라고 말한다.

편집국장 권행완

새마을의 세계화! 권령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



구원으로 새마을운동 업무를 시작하여 새마을운동 원형연구를 비롯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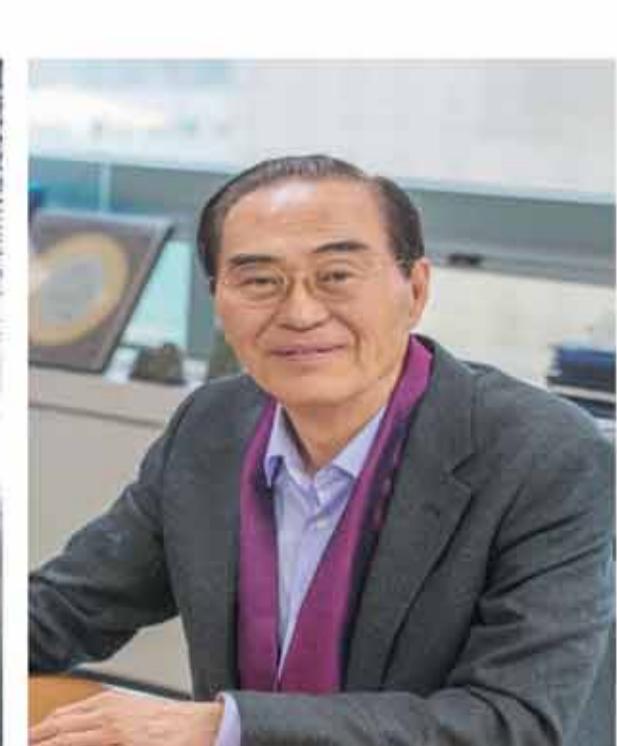
2015년~2017년 KOICA 새마을운동 전문가로 베트남, 2018년~2019년 새마을세계화재단 주코트디부아르 사무소장으로 현장에서 활동하였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전 세계 개도국에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보급하고 민간외교로 국위를 선양했으며, 국내·외 새마을운동 연수업무를 맡아 새마을을 보급에 노력한 공로로 2014년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장관 표창을 받았다.

경선= 권성옥 기자

50년 전통의 전문 골판지 제조 기업



대양그룹

대양그룹 회장 권혁호

대표번호 : 02-3472-5915 홈페이지 : www.dygroup.co.kr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1 강남빌딩 5층 대양그룹